

“아이들에 외국 문화 알려줄 수 있어 뿌듯”

이주여성 10명 마을강사로 변신

남구 평생학습 강사 양성교육 결실
결혼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다양한 문화·역사 이야기 등 강의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역아동센터 강사로 변신했다.

남구는 최근 평생학습 마을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결혼 이주여성 10명이 지역아동센터 강사로 나섰다 4일 밝혔다.

평생학습 마을강사 양성교육은 지역 내 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남구 평생학습관에서 7주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5명, 베트남 3명, 필리핀·캄보디아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은 마을강사가 되기 위해 기본 과정으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감성적 스피치와 효율적인 의사 표현 전달법 등을 배웠다. 강의안 구성·작성법,



외국어 및 문화, 역사 등도 심화 학습을 통해 익혔다. 마을 강사로서의 첫 걸음은 오는 11월 둘째주에 예정돼 있다.

이들은 남구 곳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모국어를 비롯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는 이들이 마을 강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를 강의 현장

에 배치하고, 강의를 참관하며 1대 1 맞춤형 코칭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주여성 강사들은 “구청에서 맞춤형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덕분에 강사로서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린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하도록 마을 강사로서 활동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경북여성단체, 경북서 문화교류로 화합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영애)는 지난 3일부터 이틀동안 경북여성단체협의회 초청으로 경북 문경시를 방문, 전남·경북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친선교류 및 상생 발전 방안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교류행사는 지난 2016년 전남·경북 여성단체협의회와 교류협력 체결로 시작돼 짝수해에는 경북에서, 홀수해는 전남에서 펼쳐진다. 행사는 올해 5년째를 맞아 소통과 화합을 나누며 상생교류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전남·경북 여성단체협의회는 ‘드림천사 오케스트라’ 단원 후원금 전달식에 이어 양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및 관광활성화를 위

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경북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남에서 사랑의 도시락 1만2000여 개를 경북에 보냈으며, 경북은 수마기 활취고 간 전남을 위해 컵찰국수 1만여 개를 보내줘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김중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친선교류의 장을 통해 우호관계를 다져 지역현안 해결에도 함께한 양 지역 여성단체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여수 한영대와 농촌 일손돕기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진영)가 최근 장흥군 관산을 농가에서 여수 한영대 자원봉사자 30명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지원을 받아 전남지역, 농산물 기부식품에 대한 모델화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제공>

동신대 전인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 정책 발전 기여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전인철 교수가 국가 보건 정책 사업 발전에 기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보건으로 인력 중장기 수급 연구와 보건으로 인력 법정 보수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교수는 현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환경사 시험위원장, 대한안경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적십자 기아차봉사회, 서창동 독거노인에 연탄 전달



대한적십자사 기아차봉사회(회장 정성)가 최근 1박 2일에 걸쳐 행북나눔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적십자기아차봉사회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조합3부 직원 50여명 등이 참여해 연탄 1만장 과 이불 50채를 서창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이 맛에 산다(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 고향이 보인다
⑪	00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05 한국인의 밥상(재) 55 UHD 습터	00 도도술술라라술(재)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15 생방송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날아라 개천용(재)
①	00 TV쇼 진품명품(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영동발발 풍순이와 친구들 6			
③	00 마법소녀 디디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특목 보험설계(재) 55 닥터 365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최강 1교시(재)
⑥	00 6시 내고향	20 2020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LG)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30 누가 뭐래도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술술라라술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맛남의 광장
⑩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투페이스	40 특집다큐 세계지질공원 <땅이 간직해 비밀>	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접수! 무비월드 스페셜
⑫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20 통합뉴스룸 ET(재) 50 사랑의 가족(재)	05 트로트의 민족 스페셜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 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터! 퓌터! 하니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로보카 폴리	12:25 독도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45 다큐 잇
0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3:00 명의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미니특강대 슈퍼공룡파워2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유류 랜드마크 기행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시간이 멈춘 섬, 몰타>
09:00 레인보우 루비	16: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9:15 또깨비 가족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시골 노부부로 삽니다 4부
09:30 몰랑	16:30 당동맹 유치원(재)	추차 할매의 사부곡(惠夫曲)>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21:50 파란만장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형사 가제트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음 9월 20일 壬子)

<p>36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48년생 분의 아늑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60년생 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으니라. 72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84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96년생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7, 59</p>	<p>42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54년생 사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가 있으니라. 66년생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78년생 특수한 요령에 따르지 않으면 험난해 질 것이다. 90년생 가벼운 조처가 무방하다. 02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18, 82</p>
<p>37년생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답답할 수도 있으니라. 49년생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61년생 심하게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야겠다. 73년생 단편적인 것은 판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년생 한 번만으로는 불안전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97년생 명쾌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01, 77</p>	<p>31년생 주관이 강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우니 타자와의 조율과 의견개진이 필요한 단계이다. 43년생 유효하고 낱수도 있다. 55년생 방향과 방법의 선택이 고통을 좌우 하리라. 67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79년생 생각 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리라. 91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는 기만하게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6, 52</p>
<p>38년생 유종의 미가 종하니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할 것이다. 50년생 연유하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62년생 전환되면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74년생 우려하여 왔던 바는 아니니 부담감을 떨쳐버려도 된다. 86년생 기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니라. 98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81, 58</p>	<p>32년생 귀결점은 동일할 것이니 마음 쓸 필요는 없다. 44년생 대다수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길함이 보인다. 56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68년생 양호한 기분이 완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80년생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님을 알라. 92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25, 70</p>
<p>39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51년생 절대로 믿어 왔던 것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리라. 63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도다. 75년생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발생 자체에 의미를 갖게 되리라. 87년생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99년생 생 뜻이 있다면 주장해야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19, 72</p>	<p>33년생 냉정한 현대 앞에서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45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보느니라. 57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69년생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다. 81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다. 93년생 고통이 흔해지니 방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60</p>
<p>40년생 옛 것으로부터 행운이 따를 수다. 52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64년생 일처하는 않겠지만 근처에 이르리라. 76년생 특별한 의미가 있다. 88년생 처음에는 엇갈렸다 가 나중에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00년생 배후가 드러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64</p>	<p>34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46년생 선의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58년생 서설은 생략하고 한시바빠 본론으로 들어가야 옳다. 70년생 절대적이 라고 여겨왔던 것에 대해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 82년생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94년생 실기 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행운의 숫자 : 06, 55</p>
<p>41년생 주체적 관념이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53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겠다. 65년생 소모적이라면 곱하게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89년생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01년생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 하자. 행운의 숫자 : 04, 92</p>	<p>35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47년생 고통에 우산이 뒤집힐까봐서 인간됨을 쓰며 나아가는 양태이다. 59년생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라. 71년생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격이다. 83년생 실수가 없어야겠다. 95년생 파종을 했다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03, 89</p>